

#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식물세밀화가'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2014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적 없는 식물 '속단아재비'가 우리나라 전남 완도에서 처음 관찰됐습니다. 이 식물을 세계 학회에 보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식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 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명 더 있습니다. 바로 '식물세밀화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식물을 찍을 수 있음에도 식물세밀화가는 왜 힘들게 그림을 그려 식물의 정보를 기록할까요? 식물세밀화가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식물세밀화가의 직업적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 ▼ 식물세밀화가가 하는 일은? 사실적으로 식물 그리기!

### 식물세밀화가란?

사진보다 더 명확하게 식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사람

### 식물세밀화란?

식물도감이나 식물 관련 연구 자료에 활용되는 그림 자료이자 과학일러스트

식물세밀화가란 식물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식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담은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있음에

도 왜 식물세밀화가 필요할까요? 사진도 식물의 모습을 전달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그림이 식물의 모습을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식물을 다양한 형태와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를 기록하면 사람들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식물들과 어울려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식물을 기록하면 주변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식물세밀화가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식물의 모습만을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물학 논문에서는 사진 대신 식물세밀화를 신는 것이 일반적인 정도이지요.

식물세밀화와 풍경화·정물화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물화와 풍경화는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과 배경을 보고 그림을 그려도 매우 다른 그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세밀화는 작가의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식물의 모습을 그립니다. 즉, 식물세밀화는 예술이 아닌 '과학'인 것이죠. 인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려진 인체해부도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렇다면 식물세밀화가는 어떤 과정으로 식물세밀화를 그릴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봅시다.

## ※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과정

### ① 그릴 식물에 대한 조사 실시

② 자생지를 방문해 식물의 식생을 스케치한 후 채집

③ 현미경을 이용해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식물 묘사

식물세밀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려는 식물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식물마다 반드시 그려야만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각종 논문을 통해 해당 식물의 정보를 공부하고, 같은 품종의 다른 식물들의 정보를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냅니다. 둘째, 자생지를 방문해 식물의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 뒤 식물을 채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집한 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해부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 **식물세밀화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끈기와 식물에 대한 애정 필요해!**

식물의 모든 생김새를 세세하게 묘사하는 일  
 최소 1년간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직업  
 ▶ 식물에 대한 애정 반드시 갖춰야!

식물세밀화를 그릴 때에는 기나긴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끈기와 식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일을 해내기 힘들지요. 식물세밀화가는 꽃잎의 모양, 뿌리에 난 솜털, 잎사귀 결의 방향까지 세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식물 하나를 그릴 때 최소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식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 1년 정도 식물을 관찰해야 합니다. 식물에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식물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식물을 관찰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끈기와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 **식물세밀화가가 되려면?**  
**식물학에 대한 이해는 기본! 그림 실력도 견비해야!**

대학에서 식물 관련 학과 전공→국립수목원 입사·프리랜서 활동

식물세밀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원예학과와 같은 식물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식물세밀화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물세밀화가를 채용하는 국립수목원에 입사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 **식물세밀화가,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환경오염·식량부족·식물 멸종을 예방하는 일**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과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물학은 미래의 식량부족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학문이지요. 식물세밀화가는 식물학을 기반으로 식물을 공부하고, 이를 정확한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식물의 종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생

태계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식물의 종 보존 문제를 대중에게 알려 문제해결에 관심을 끄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식물은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식물을 보며 식물세밀화가의 자세를 배우지요.”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자연과 식물이 보존될 때 인간도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그림에 큰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식물세밀화가 직업을 꿈꿔보는 것이 어떨까요?